

#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실시

### 남원시, 지역아동센터 실버도우미·청춘교육단·노인자치경찰대 등 참여

남원시는 고령화 사회진입으로 발생하는 노인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들 노인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시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 하기 위해 총 36억4,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700여명에게 이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 보다 1억9,200만원의 예산이 더 증가한 결과다.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우선 일자리 시작 전에 발대식을 갖는데 참여자중 434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별로 3일에는 남원시 노인복지회관에서, 7일에는 대한노인회남원시지회에서 이 사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갖는다.

올해 일자리 사업은 총 30개 수행기관에서 36개 분야의 사업이 실시되는데 이 중에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일자리 248명을 비롯 살기 좋은 고을가꾸기, 지역아동센터 실버도우미, 청춘교육단, 노인자치경찰대, 게이트볼지도강사 등 공익형 일자리 1,310명, 김부각사업, 면사랑국수, 시니어마트, 실버카페 등 시장형 일자리 127명이 참여한다. 특히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새싹보듬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어린이집 42개소에 파견되어 아이들을 보살피고 교사들을 보조하는 일을 하게 된다. 시비 3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142명의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일자리 사업은 당초 32억

6,400만원의 예산으로 1,649명이 참여했는데 반응이 좋아 추경예산에서 1억8,000만원을 확보, 참여자가 1,862명으로 증가했다. 금년 일자리참여자 인건비는 지난해 월 20만원 보다 2만원 많은 월 22만원이 지급되며 공정한 일자리사업을 위해 대기자 관리 및 부적격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일자리사업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대상자들을 위한 재참여 기회의 발판도 마련된다. 이와관련 이환주 시장은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노후를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를 찾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시책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옥정호 남측 순환도로 반드시 추진해야”

### 심민 입실군수, 국가예산 확보 위해 국회 방문... 타당성 설명

“지난 50년간 전국 댐 중 유일하게 개설되지 못한 옥정호 남측 순환도로는 반드시 추진돼야 합니다.” 심 군수가 올해 들어 벌써 다섯 번째 국가예산 확보길에 올랐다. 연초부터 국토부와 환경부, 안전처, 행정부를 연이어 방문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회를 방문해 도내 국회의원들을 만났다. 심 군수는 이날 국토부 소속 안호영 국회의원을 만나 심진강댐 순환도로 개설사업의 국가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집중 설명했다. 심진강댐은 지난 1965년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댐이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순환도로가 제대로 개설되

지 않아 교통단절에 따른 주민피해와 지역 낙후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심 군수는 옥정호 순환도로 중 미개설 구간(15.8km)에 대한 사업비(480억원)의 국가예산 확보가 매우 절실한 상황임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심 군수는 또 심진강댐 호내농부지센터 건립을 위해 수자원 공사측과 협의해 20억원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심 군수는 지역구 의원인 이용호 의원과의 면담 자리를 갖고, 지역사업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의원과의 만남에서 심 군수는 금

안리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 등 국민안전처 소관 4개 사업을 비롯해 호심행정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노인복지관 신축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원 등 7개 사항에 대한 군정 주요 현안을 건의하고, 향후 예산 확보방안을 협의했다. 이와 함께 심 군수는 이 의원에게 호심행정 추진내용 등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설명하고, 핵심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심 민 입실군수는 “우리군 속원의 해결과 지역현실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을 통해서 국비 확보의 결실을 조속히 얻어내도록 노력하겠다”며 “중앙부처와 정치권의 합치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서라면 심신을 다해 온 열정을 쏟아내겠다”고 말했다. /입실=진홍영 기자

# 입실군, 비산면지발생사업장 특별 점검 실시

불철 건조기 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인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근절을 위해 입실군이 비산면지발생사업장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13일부터 4월 말까지 건설공사장 토사 운반차량을 중심으로 약 80여개 사업장이 대상이며 이를 위해 자체 점검반을 편성했다. 점검반은 불시에 사업장을 찾아 방

진벽, 방진덮개, 세륜 세차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상태를 확인하고 살수 시설 설치와 정상 운영 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이송·수송시 비산먼지 억제조치,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사항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

은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해 약 6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5개 업체를 적발하고 192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비롯해 장비 사용금지, 조치이행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건설공사장 및 토목공사장의 자발적인 비산먼지 저감을 유도하고 억제 위한 점검과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실=진홍영 기자



# 순창 치유농장 성공문 ‘활짝’

### 군, 동물 테라피·웃음치료·특화체험 등 운영

순창군이 3가지 테마 19개 '치유농장' 운영을 통해 농업 6차산업 성공문을 활짝 열었다. 치유농장은 순창군이 농업의 치유기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깨끗한 환경의 농촌생활에서 건강한 자연발상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몸과 마음의 휴식과 치유를 얻어가는 신개념 농촌관광 체험 프로그램이다. 군은 지난해까지 5억여원을 투입해 참여 농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치유의 밭'이란 공동 브랜드를 구축해 공동 마케팅을 실시하고 농가별 특성을 반영해 3가지 테마로 농장들을 네트워크화 했다. 3가지 테마는 아름지기, 장수지기, 행복지기다. 아름지기는 '아름다움의 비밀을 알려주는 친구를 찾아서'란 주제로 피부미용과 다

이어트에 효능이 있는 작물재배 농가들이 풍쳤다. 장수지기는 '장수의 비밀을 알려 줄 친구를 찾아서'란 테마로 원기회복과 노화방지에 효능이 있는 작물 재배 농가위주 체험농장이 주다. 세 번째 테마 행복지기는 '행복의 비밀을 알려줄 치유농장'으로 동물테라피, 웃음치료, 특화 체험을 결합한 테마코스 체험을 진행하는 농가 6농가가 참여한다. 군은 치유농장의 본격적 운영을 통해 농산품 이를 활용한 가공품 판매, 치유식단체험, 관광까지 연결하는 6차 산업을 이끌고 전라북도 삼각농정의 성공모델로서도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본격적 운영을 앞두고 최근 도시민 등 주민 20명을 대상으로 치유농장체험과 자연에서 진행되는 요가, 찜질치유, 숲속트레킹 프로그램을 운영해 성공가능성을 확인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순창경찰, 농·축산물 절도 예방 홍보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 구림파출소(소장 최태립)에서는 농·축산물 절도 예방 및 3대 반칙행위 근절을 위한 찾아가는 마을 홍보를 실시했다. 구림파출소는 구림면 방화마을 등 32개 마을을 방문, 진출입로에 설치된 방범용 카메라 모니터 및 카메라 각도를 점검 조정하였고, 이장들에게 농번기 옆집 바주기 및 무단속 절제를 당부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또한 순창경찰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3대 반칙 행위 중 교통법규 행위 근절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마을 엠보 방송과 주민접촉을 통해 읍주운전, 난폭 보복운전, 알체 운전의 실태 및 경찰 단속 활동 사항을 알렸다. 최태립 소장은 "봄철 농번기가 다가오며 따라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예방 홍보와 세밀한 순찰활동을 병행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순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고창군, 산불요인 제거 작업 '구슬땀'

고창군 상하면사무소 직원들과 상하면 진화대원, 그리고 상하면 의용소방대 등 30여명이 불철산불대피 산불요인 제거 작업에 나섰다. 이날 참석자들은 3개조로 편성해 상하 송곡지구, 하장지구, 검산지구에서 산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산불요인 제거작업을 진행했다. 상하면 이성호 진화대장은 "산불 발생 없는 상하면을 위해 지속적으로 산불요인 제거작업을 진행하겠다"며 "수시로 예방활동을 하고 불철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산불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철용 상하면장은 "산불예방활동의 시작은 우리들의 작은 관심으로부터 생긴다"며 "목목히 활동에 힘써 준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주민 모두가 논·밭두렁에서 쓰레기 소각을 하지 않고 인화성 물질 소지 입산 금지 등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켜주셔서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남원시보건소, 필리핀 여행객 콜레라 감염 주의

### 2명 콜레라환자 세부서 발병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우리나라 필리핀 여행객에서 두 번째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였다고 알리며 필리핀을 여행하는 경우에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식생활 등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필리핀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콜레라 발생 우려로 감염병 예방수칙을 유도로 지정되었으며, 최근 발생한 2명의 콜레라환자 모두 필리핀 세부를

여행한 후 발병하였다. 남원시보건소에서는 필리핀을 여행하는 경우에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식생활 등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물으며, 필리핀을 여행한 후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해외여행 여부를 의료진에게 알리고 콜레라검사를 받도록 하고, 콜레라환자를 진단 및 치료한 병원은 자체없이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에서 만나는  
**지리산 둘레길**

마을과 고개를 넘어  
사람과 숲을 이어주는  
지리산 800리길, 남원

파란 하늘과 붉은 산과 황금 들녘이  
수채화처럼 펼쳐지는 곳  
지리산 둘레길엔 가을이 한창입니다.

지리산 둘레길은 KBS 1박 2일이  
함께 했던 남원  
멋과 맛이 숨쉬는  
가족 여행지입니다.

남원시